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3주일
제37권 9호(가해) 2017년 1월 22일

[묵상]



<갈릴래아 호수>

회개(悔改), 'Metanoia',
회두(回頭), 근본적인 방향전환

참으로 행복한 삶이란,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빛 안에 머물 때,
이루어진다.

형식적이고 외형적인 회개가 아니라,

‘자기 것’을 버리고,
인간개조, 인간혁명이
이루어진다.

회개의 삶이란 사랑의 삶.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듯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과감히 버리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 삶은,
또 하나의 그리스도로 사는 삶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오-

petrus3@hanmail.net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출발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꾸리아 오후 1:30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 ~ 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오전) 2:00 ~ 7:00(오후)
수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목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금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토	9:30 ~ 11:30(오전) 2:00 ~ 7:00(오후)

주임신부 : 오창근 페드로 (310)326-4357, 4358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7, 4358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7, 4358 Ext.100 Fax: (310)326-4360

한국 교회의 역사

제3부 한국 교회와 현대 사회(1945-1999년)

3. 한국 교회의 쇄신(1962-1984년)

3-2. 한국 가톨릭 문화의 전개

이로써 오늘날의 교회는 분당 단위 활동과 전국 조직체 활동을 상호 조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한국 교회의 전통적 신심인 순교자 신심도 강화되었다. 순교자 신심은 1866년 병인박해 순교자에 대한 시복 운동을 통해서 진행되었다. 그 결과 1968년에 순교 복자 24위의 시복식이 로마에서 거행되었다. 순교자 신심 운동은 한국 순교 복자 시성을 추진하면서 더욱 고조되어, 1976년에는 한국 평신도 사도직 협회회의 건의와 호소에 따라 순교 복자 시성 운동이 본격화한다. 시성 운동은 '한국 천주교 200주년'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진행하게 된다.

1960년대 이후 한국 교회에서는 한국 문화와 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노력하는데, 한국 교회는 가톨릭 대학교, 효성 여자 대학교, 서강 대학교, 성심 여자 대학교 등 고등 교육 기관을 운영하는 한편, 유아 교육, 초등 교육과 중등 교육 발전을 위해서도 이바지한다. 당시 한국 교회는 문학, 미술, 음악 등 고급 문화 분야 발전에도 이바지하면서 가톨릭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켜 나간다. 한국 교회는 교육 개발 사업과 함께 의료 복지를 비롯한 각종 사회 복지 사업에도 참여하여, 1980년대 초반 한국 교회에서 운영하는 병원들이 전국 병원의 침상수 중에 11% 이상을 차지하였다. 당시 한국 교회 신자 수가 전국 인구의 3% 내외에 지나지 않던 사실을 감안하면 이는 의료 복지에 대한 교회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컸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교회는 각종 보육원, 양로원과 여러 사회 사업 기관을 통해서 사회 개발에 참여하는데, '소년의 집', '꽃동네'를 비롯한 대규모 복지 시설을 설립한다. 그리고 정부나 지방 자치 단체에서 설립한 사회 복지 기관들을 위탁 받아 운영하기 시작하는데, 복지 기관 위탁 경영은 교회의 복지 기관 운영에 대한 신뢰가 다른 어느 단체보다 높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1969년 1월에는 신구약 성서의 공동 번역 작업을 시작한다. 이 사업은 1970년에 공동 번역 신약성서가 간행되고, 1977년에 구약성서가 간행됨으로써 완결된다. 현재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이 공동 번역 성서를 공인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로써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성서를 받드는 하나의 형제임을 확인하고 서로의 오해를 청산하는 계기를 맞았다.

< 계속 >

오늘의 성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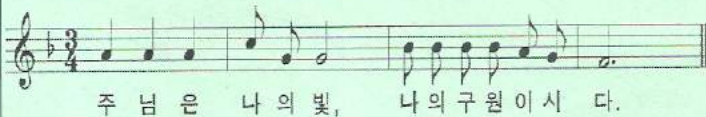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208	208	182
봉헌	270	270	255
성체	304	304	279
파견	183	183	234

토요 저녁 미사	(연)이용식베드로, 서성용 베드로, 임은영 안젤라 (생)오창근 베드로사제 & 조옥중 요한사제
주일 학생	(연) (생)
주일 낮 미사	(연)변세연 안드레아 & 변혜경 올리안나, 현시영 요셉, 오원순 안나, 고준희 제임스, Bob Polk, 최윤복, 김기숙 켈마, 임은영 안젤라, 김혁기 요한 & 채오목 마리아 & 김수미 아네스, 박이나시오, 지용애, 전정규 루시아, 정말술 안토니오 & 정순기 보나, 송기분 수산나 (생)황윤재 베드로 가정, 박정미 클라라, 손석 스테파노, 민순섭 사비나 & 박씨니 마가렛, 차병용 클레멘스, 매피의 여왕Pr. 김임식 마누엘라 수녀, 오창근 베드로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8,23-9,3

화답송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며, 주님의 아름다움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 우러리보는 것이라네.○
○저는 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힘내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제 2독서 코린토1서(1Corinthians) 1,10-13,17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복 음 마태오(Matthew) 4,12-23<또는 4,12-17>
영성체송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신부님! 왜 사제가 되었습니까?” 사제들이 가끔 듣는 질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나의 경우에는 대단한 체험이나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으며 “운명이겠지요?”라고 반문을 합니다.

형님 신부님은 초등학교 때 성당에서 미사 복사를 열심히 하면서 복사단 선배들과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그 선배들 중 많은 이가 소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형님도 선배들을 따라 신학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나의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주말이면 형을 면회한다고 가족들과 함께 신학교를 들락거렸습니다. 방학 때면 만나는 형의 친구들은 모두 신학생 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로를 두고 고민을 할 때 형은 나에게 ‘갈매기의 꿈’이란 책을 슬며시 건네주었습니다. 나는 그 책에 등장하는 주인공 갈매기 조나단의 삶에 매료되어 결국 신학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언젠가 내가 동생 신부에게 “넌 왜 신학교에 들어갔니?”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방학 때 신학생 형님 둘이서만 성당 이야기를 재미있게 할 때면 자기만 소외되는 것 같고 질투(?)가 나서...”라는 익살스러운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나의 형제들이 체험한 부르심의 계기는 모두 소소합니다. 물론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우연은 아니었음을 어렵듯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생각하면 생각할 수록 신비합니다.

오늘 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부르시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첫 제자들은 그저 평범하고 가진 것 없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에는 언제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는 부르심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을 부르시면서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들의 태도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아 뿐 아니라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의 응답에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업인 고기잡이 도구와 배와 그물을 다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부모, 형제,

친척까지 다 버리고 무작정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르심은 주저할 수 없고 결단과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어쩌면 주님의 부르심에 두려움과 의심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마태 16,24)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모든 것, 나 자신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계속해서 무언가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어쩌면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실지 모릅니다.

◆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아파도 진실

무엇보다 진실한 것에 가치를 두고 싶었고
또 그러하다 생각 했지만
막상 누군가 내 단점을 귀띔하면 불편해집니다.
진실은 달콤한 적 없어 늘 날카롭고 서늘하여
어쩔 수 없이 아픔입니다
그런 까닭에 진실을 추구하면서도
그것이 내 문제가 되니 달라집니다.
두렵지만 사정없이 찢려서라도
서늘하게 깨어있기를
희망, 또 희망합니다.

-이영 아베스-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유지아 클라라	정광미 프란체스카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박진수 스테파노	김교복 레오	정인옥 아오스딩
제2독서자	박혜경 레나타	김금자 데레사	박은혜 클라우디아
제물봉헌자			토남 3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호미 엘리자벳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정진옥 노엘	이민상 요한	박진수 스테파노
제2독서자	시무궁 루이스	이순자 비비안나	박혜경 레나타
제물봉헌자			PV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사제서품 25주년 은경축을 축하드립니다.◆

2월 1일은 오창근 베드로 본당 주임 신부님의
사제서품 25주년이 되는 은경축일입니다.
신부님의 건강과 성인 신부님이 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경축일 미사와 기념행사 - 1월 29일 10시 ***
(미사 시간 변경안내 : 아침미사: 7시 30분, 낮 미사: 10시)

◆ '설날' 합동 위령미사

앞서 가신 조상님들과 부모 형제 친지들의 영혼을 기억
하여 설날 합동 연미사를 봉헌합니다.

- 미사 : 1월 28일(토) 오전 8시 30분, 저녁 7시
연도와 분향이 있습니다.
- 미사후 떡 나누기
- 미사예물 봉헌 : 사무실

◆ 주님 봉헌 축일... 제대초 봉헌과 개인초 신청받습니다.

성탄 후 40일째 되는 날에 지내는 '주님 봉헌 축일' (2월 2일)은
성모 마리아께서 정결례를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
봉헌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교회는 이날 전통적으로 1년
동안 전례와 가정에서 사용할 초를 축성합니다.

- 초값 : 제대초 \$20, 개인초 \$15 (2개)
- 신청 : 1월 29일(주일) 까지 성물부 또는 사무실
- 축성할 때(봉헌 축일) 개인이 따로 구입한 초를 가져와서
축성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사시간: 2월 2일(목) 저녁 7시 30분

◆ 안나회 1월 모임 임시변경

- 일시: 1월 22일(주일) 11시 미사후
- 장소: 회의실
- 문의: 한춘선 안나 (310)800-8533

◆ 주일학교 신입 복사단 모집

- 자격: 첫 영성체를 한 3학년이상 주일학교학생
- 신청서: 사무실
- 신청마감: 1월 29일
- 문의: 이인석 비오 (213)258-8665

◆ 주일학교 견진 1 반 피정

주일학교 견진반 학생 17명이 피정에 참가할 예정 입니다.

- 일시: 1월 27일~29일
- 장소: Temecula, CA

◆ 한국학교 2016-17년도 1학기말 시험 실시

- 일시: 1월 22일 2교시
- 장소: 각 반별로 진행
- 시상식: 1월 29일 10시 미사 중

◆ 한국학교 2016-17년도 2학기 등록 접수

- 일시: 1월 22일, 29일 (29일까지 20% 할인 혜택)
- 장소: 한국학교 교무실
- * 접수는 각 반별 정원제이므로 선착순 접수됩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월 22일: 카레라이스 (토동1반)
*주일학교: 피자 (9학년)
- 1월 29일: 홍합미역국(PV2반)
*주일학교: 칠리덕(11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미순 권태만 금영도 김기정 김대우 김병조 김상근 김양금 김여순 김옥찬 김 옥 김윤진 김정아 김정희 김 준 김택수 노혜숙 박영희 박운모 박정자 서용숙 성미선 신순철 오세원 우영희 원건희 유희연 이근태 이미예 이종선 이태옥 정규숙 조준제 최기호 최원석 한창주 황인종 황철수 이크리스 한길선례	성전헌금	강미순 권태만 금영도 김기정 김대우 김병조 김양금 김윤진 김정희 김 준 노혜숙 박정자 서용숙 신순철 오세원 원건희 유희연 이근태 이미예 정규숙 조준제 최기호 최원석 한창주 황인종 이크리스 한길선례
	합계: \$ 4,915		합계: \$ 2,235
주일미사헌금: \$2,512	광고비: \$240	감사헌금: \$300(장원철, 한길선례)	

◆ 2017년 11월 SAT II 한국어 시험 대비반 개강

- 일시 : 2월 5일~6월 18일
- 자격 : 현재 8 학년 이상 등록 가능
- 등록비 : \$ 200 (교재 및 기타 자료 포함)
- 장소 : 한국학교 교무실

◆ 주일학교 & 한국학교 교사 모집

백삼위 한인성당 주일학교 & 한국학교에서 성실히 봉사하실 수 있으신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연락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 이메일 : 103skcecks@gmail.com

◆ 청소년 분과 봉사자 모집 공고

백삼위 한인 성당의 주일학교, 한국학교의 발전은 교우 분들의 작은 기도와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생들이 지금보다 더 즐거운 성당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 최이원 바르톨로메오 ☎ (213)700-9399
- 이메일 : 103skcecks@gmail.com

남가주 소식

◆ 한국의방선교회 멕시코 캠페체 선교지 방문단 모집

- 방문일정 2/23(목)-2/28(화)
- 방문지 : 멕시코 캠페체
- 활동 : 미사 봉헌과 문화탐방
- 연락처 : 최기남 야교보 ☎ (310)569-3940

◆ 영어권 청년/성인들을 위한 신앙 대회 LIBERATION

- Freedom is calling
- A faith rally open to all young adult / adults
- 지도 (강사) 신부님: Fr. Joe Kim, Fr. Richard Sunwoo
- February 4th (Saturday), from 3 - 6:30 PM
- Sungsam Korean Catholic Center
1230 N San Fernando Rd, Los Angeles, CA 90065

◆ 송봉모 토마스 모어 신부님 성경 학교

- 주제 : "생명의 주님을 찬미 하며" -요한 복음 5-9장
- 강사: 송봉모 신부님(예수회 소속)
- 일시 : 1월 20일(금) 7:30pm 미사 후
1월 21일(토) 7:30pm 미사 후
1월 22일(일) 2:00pm
- 대상: 모든신자와 일반인, 신청비: \$30
- 장소 : 한국순교자 천주교회
7655 Trask Ave., Westminster, CA 92683
- 사무실 714- 897-6510 x100
- 문의 : 하세실리아(323)578-2230
정요세피나(213)598-6344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진재 메히틸다 713-4926	이태옥 아가다 01/9(월)오전11시 성당
	2	장수영 페트릭 781-0787	한창주 요아킴 01/14(토) 오후6시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01/20(금)오후7시30분
토런스 서 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박동수 베드로 218-7340	이병찬 안토니오 01/14(토) 오후5시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윤화경 바오로&실비아 01/14(토) 오후5시
	3	박명순 안나 968-7600	김현정 헬레나 01/21(토)오전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정문주 프란치스카 01/20(금)오후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01/16(월)오전11시 성당
	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이재용 안드레아 01/13(금)오후6시
토런스 북 이복임엘리사벳 905-2225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김병태 요셉 01/16(월)오후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중 다니엘 (818)640- 9171	1/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팜스프링 현대리조트 01/14(토) 오후2시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해나 베네딕도 384-3289	남성철 베네딕도 01/13(금)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김관기 라파엘 01/14(토)오후6시
	3	신혜정 토사 213-369-0687	김병록 요셉 01/13(금) 오후7시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반나영 세실리아 01/10(화)오전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사목회의	1시 미사
------	-------

다음주일 단체모임

--	--

넷째 왕의 전설

우리는 성탄을 지내면서 넷째 왕의 전설에 대해 한번쯤 생각해 보았을 것이다. 알타반이라는 네 번째의 왕은 가스팔, 멜키올 그리고 발다살과 함께 별을 따라 새롭게 태어난 왕을 예배하러 가기로 약속을 하였다. 그래서 알타반도 왕에게 드릴 선물로 값 비싼 사파이어, 루비 그리고 진주를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러나 길에서 그는 열병에 걸린 환자를 만났다. 그는 시간이 없으면서도 머물면서 그 사람을 도와서 병을 낫게 하였고, 그리하여 그는 혼자가 되고 말았다. 그는 친구들과 그리고 대상들과도 떨어졌기 때문에 사막을 넘는 것을 도와 줄 낙타와 인부들이 필요하였다. 그는 병든 사람을 도와 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입수하기 위하여 사파이어를 팔지 않으면 안 되었다. 왕에게 보석을 드릴 수 없어서 그는 매우 슬펐다.

그는 여행을 계속해서 팔레스티나, 그리고 베들레헴에 예정대로 도착하였다. 그러나 또 다시 그의 도착이 늦어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아기 왕은 이미 떠난 후였다. 그 때에 어린아이를 학살하라는 헤로데 대왕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병사들이 왔다. 알타반은 어린아이가 있는 어느 집에 숙박하게 되었고, 그 어린아이를 사랑하게 되었다. 병사들의 무서운 발소리가 들리며 피로운 어머니들의 울음 소리가 들렸다. 알타반은 병사들의 대장이 왔을 때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루비를 주고 매수하였다. 그 어린아이는 구원 받았고 어머니는 기뻐하였다. 그러나 루비는 없어졌다. 그는 왕이 자기의 루비를 가져 보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슬퍼하였다.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왕을 찾아 헤매다 30년이 지난 후 예루살렘에 찾아갔다. 그날 십자가에 못박힘이 있었다. 알타반은 십자가에 못박혀 있는 예수님의 일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그가 왕과 같이 생각되었다. 그는 골고타로 가려고 하였다. 그는 진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진주로 왕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길을 가고 있을 때, 일대의 병사에게 쫓기는 소녀 하나가 도망쳐 왔는데, 소녀는 "나의 아버지는 빛을 졌습니다. 그들은 빛을 갇기 위해 나를 잡아 노예로 팔려고 합니다. 살려 주십시오." 하며 애원하였다. 알타반은 주저하였으나 곧 슬퍼하며 그의 진주를 끄집어내어 병사들에게 주면서 소녀의 자유를 샀다. 소녀는 구원을 받았다.

그 때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지진이 일어나 기왓장 하나가 날아와서 알타반의 머리를 때렸다. 그는 반쯤 의식을 잃고 땅에 엎드렸다. 소녀가 쓰러진 그를 부축하려 할 때, 갑자기 그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아닙니다. 주님, 언제 제가 당신이 굶주린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저는 33년 간 당신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의 얼굴을 뵈지도 못하였고 저의 왕이 되시는 당신을 섬긴 일도 없습니다." 그러자 아주 멀리서 속삭이는 듯한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진실히 이르거니와 너희가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가장 미소한 자에게 해 준 것이 곧 나에게 해 준 것이다." 알타반은 미소를 지으며 죽었다. 왜냐하면 그는 왕이 자신의 선물을 받아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가톨릭 굿뉴스

[교리상식]

묵주 기도를 하며 미사 참례를 해도 되나요?

☞ 미사에 참례하는 신자들은 전례 때에 참담하거나 남에게 분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묵주기도를 바치거나 다른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은 올바른 자세와 오롯한 마음으로 전례에 참여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지 않도록(2코린 6,1 참조) 은총에 협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자 재교육 교리 상식1 「미사 전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묵주기도(默珠祈禱)

주교회의 천주교용어위원회는 ‘매괴’는 해당화를 일컫고, 로사리오(Rosario)는 외국어이므로, 이전부터 사용하던 ‘묵주’(默珠)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도록 통일시켰습니다. ‘침묵하다, 잠잠하다’는 의미의 ‘묵’(默)과 ‘구슬’을 의미하는 ‘주’(珠)를 합쳐서 묵주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묵’(默)은 ‘묵상하다’의 줄임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묵주는 ‘묵상(默想)을 위한 구슬(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묵상을 위한 구슬로 엮인 묵주를 들고 바치는 기도를 ‘묵주기도’라고 부릅니다.

묵주기도는 라틴어로 쓰였을 때, “Rosarium Virginis Mariae”(로사리움 비르지니스 마리아에)라고 부르며 이를 뜻 그대로 번역하여 보자면 ‘동정 마리아의 장미 꽃밭’이라는 의미입니다. 기도의 장미꽃이 가득한 장미 꽃밭입니다. 장미는 꽃 중의 여왕이고, 묵주기도는 모든 신심 중의 장미이기에 첫째가는 신심을 드러냅니다. 예전에 장미화관을 뜻하는 ‘로사리오’(Rosario)나 장미과에 속하는 해당화를 뜻하는 ‘매괴’라는 한자어를 사용했던 것도 라틴어로 사용되는 교회의 묵주기도에 대한 정식 명칭이 ‘동정 마리아의 장미 꽃밭’이라는 기도 이름 때문이기도 합니다. 묵주를 들고 정성껏 바치는 기도는 성모님께 가장 아름다운 장미꽃을 엮어 올리는 영적 장미 꽃다발이 됩니다.

“모든 기도 가운데 묵주기도는 가장 아름답고 은총이 가장 풍부하며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 성모님을 가장 기쁘게 해 드리는 기도이다. 그러므로 묵주기도를 사랑하고 날마다 열심히 바치기 바란다. 이것이 나의 유언이니, 이로써 나를 기억해 주기 바란다.”<성 비오10세 교황>

◆월간 레지오마리아, 2017.1/박상운 토마스신부(여산성지성당 주임)

성당에 들어갈 때 성수를 찍는 이유는?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몸을 깨끗이 단장합니다. 그것은 좋은 인상을 보여 주고 싶은 마음이며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거룩한 주님의 집에 들어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신자들은 충분한 여유를 두고 미리 성전에 와서 기도와 묵상을 하며 경신례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성전에 들어가기에 앞서 입구에 마련된 아트리오(atrio)에서 손을 씻으며 몸과 마음을 정화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성당에 들어가기 전에 성수를 찍어서 기도하거나, 전례 때 성수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물로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죄를 씻은 후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느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을 떨쳐 버리고 깨끗하게 된 후에 들어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요한 3,5)

성수(聖水)는 말 그대로 거룩한 물입니다. 또한 가톨릭교회에서 종교적 목적에 사용하고자 사제가 축성한 ‘물’로써 성스러움을 방해하는 악의 세력 등을 씻음으로써 더러운 것을 말끔히 씻는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성당에 들어갈 때 성수를 손끝에 묻혀 성호를 그으면서 ‘주님, 이 성수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시고 마귀를 몰아내시며 악의 유혹을 물리쳐 주소서. 아멘.’이라고 기도합니다. 이는 자신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물을 통해서 하느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 탐욕과 근심, 미움, 분노 등을 모두 씻어낼 것을 다짐하기에 준성사가 됩니다.

(준성사는 교회가 신자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기 위해 만든 물건이나 행동 또는 기도문을 말합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신을 벗었듯이, 성수로 성호를 그음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느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왔음을 자각하며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탈출 3,6)

Quiz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채우세요.

“누구든지 ()과 ()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
(요한 3,5)

(1월15일 자 정답: 죄가 많은 그곳에 은총이 충만히 내렸습니다.(로마 5,20))

「성경 속 동식물」 04 해충 잡는 거미

욥기에서 악인들의 운명을 이야기할 때 거미집을 비유로 사용했다.

“그의 자신감은 꺾이고 그의 신뢰는 거미집이라네.”(욥 8,14)

또한 이사야서에서는 백성의 죄를 규탄할 때 거미줄을 언급했다.

“그들은 독사의 알을 까고 거미줄을 친다.”(이사 59,5)

사람들은 거미를 기분 나쁜 동물로 생각하지만, 인간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벌레와 해충을 잡아먹는 천적으로 인간에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

하린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써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 (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례보험/장례적금/장례계획/묘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 에이전트
Jay Lee(이안셀모) 310-908-8823
CA Inc.Lic.#0E75182

TIMEOUT

Café + Bar

15420 S Western Ave #C
Gardena, CA 90249
(구 카페베네)
310-715-1243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 마리아

☎ (310)521-4306

27501 S. Western Av. R.P.V., CA90275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구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바디 + 정비

~~~~~  
DIESEL ENGINE 전문 정비  
1-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CN 은행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잭마-

##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토렌스 세풀베다길

## 뚜레쥬르

새해 고객 감사 이벤트  
1월 한달동안

\*조각 케익 2개 사시면 하나공짜  
\*케익 하나 사시면 \$5 off(쿠폰지참시)  
새로운 페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 파고다 캐더링

각종 일반잔, 캐더링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클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 CA

##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주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 보나

Prudential  
푸르덴셜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Tel. 310-755-9837

##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 (213)384-1001 (로데오 갤러리아 몰내)

G.G.: (714)530-1001 (가주 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 중, 고, 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띠노



Heather Chong (정혜경) 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